

■ 그림 여행



방문 (La Visite c. 1899)

펠릭스 바요통 (Felix Vallotton 1865 - 1925)
 (목판에 템페라 55.5 cm c 87 cm
 스위스 쥐리히 미술관)

푸르스름한 실내는 은밀한 긴장감으로 가득차 있다. 잘 꾸며진 거실로 보이는 방에 한 신사와 숙녀가 몸을 밀착한 채 서 있다. 한눈에 보기에도 점잖고 사회적인 지위가 확실해 보이는 신사는 수줍은 듯 눈을 감고 있는 숙녀의 몸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그녀의 왼손을 꼭 잡고 있다. 그녀는 그에게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서 있는데 그들이 서 있는 거실에는 웬지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듯 느껴진다.

이것은 무슨 장면을 그린 그림일까? 밀회의 장면일까? 남몰래 만난 두 사람이 이제 막 실내로 들어와 그동안 참고 있었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일까? 아니

면, 열정의 시간을 불태운 후 헤어지기 아쉬워 이별의 순간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? 그러나 푸른색과 녹색, 보라색, 자주색 등 무겁고 침침한 색채로 이루어진 화면은 연인들의 열정을 암시하지 않는다. 차라리 무언가 무섭고 위협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을 조장한다.

여자의 몸짓을 보면 불안의 표현을 감지할 수 있다. 어깨를 움츠린 채 몸을 뒤로 빼고 있는 자세는 소심한 저항의 의사를 나타내고, 남자의 오른손에 잡힌 손은 꼼짝없이 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. 위협과 폭력이 다가올 듯한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데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오른쪽 책장으로 번져 방안을 덮칠 것만 같다. 미지의 동굴로 통하는 듯한 왼쪽의 방은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위험한 사건의 전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.

프랑스 나비파 화가 바요통은 현대 목판화를 개척한 작가로도 유명하다. 그는 목판화 연작 '친밀한 관계' 열 점을 남겼는데 이 '방문'은 그 중 한 점의 템페라화 버전이다. 그 판화 연작에서 발로통은 언뜻 보면 친밀하게 보이는 관계 속에 암시되어 있는 긴장감과 반전의 이야기를 새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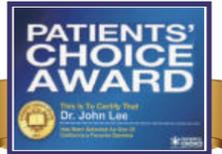
친밀한 관계 속에는 그 관계의 역사와 애증, 비밀과 약속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연들이 내포되어 있기 마련이다. 겉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장막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차없이 깨뜨리고 만다. 그러한 반전이 이 그림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채 시각적으로만 암시되어 있어 더욱 불안해진다.

《김동백》

www.fullertonsmile.com

A' DENTISTRY

**나에게
 꼭 맞는 틀니가
 있는 곳!**



- 틀니전문
- 틀니수리
1-2시간안에 가능
- 자체 랩보유
- 임플란트 틀니



John S. Lee, D.M.D.
 University of California, San Diego B.S.
 Tuff Dental School, D.M.D.

714.449.1686

536 W Commonwealth Ave. #A, Fullerton, CA 92832



Basketball Trainer



Areas of Focus

- Shooting
- Dribbling
- Defense
- Footwork
- Strength and Conditioning

Learn How To

- Become a leader
- Be assertive and vocal
- Work well on a team
- Develop a good work ethic
- Live a healthy lifestyle
- Deal with adversity

All levels of experience are welcome.

Please call or text

562-322-5269
 for more information

Tim Ahn
 3 year High School Varsity
 Starting Point Guard
 Division 3 College
 Starting Point Guard

1 Hour Private Lessons: \$100
1 Hour Group Lessons: \$50/person